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앙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01호

Tuesday, September 17, 2024 A

“암살시도 용의자, 골프장서 12시간 기다렸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를 수사 중인 사법 당국이 16일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를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우선 기소했다. 연방 법무부는 라우스를 유죄 선고를 받은 중범죄자에게 금지된 총기 소지 및 일련번호를 지운 총기 소지 등 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두 혐의 모두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수사 당국이 라우스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가 사건 현장 인근에 15일 오전 1시59분부터 오후 1시31분까지 거의 12시간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는데 경호국이 왜 더 일찍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느냐는 비판과 함께 경호실과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장을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던 비밀경호국(SS) 요원이 지난 15일 오후 1시31분께 골프

용의자 라우스, 금지 총기 소지 등 혐의로 우선 기소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뒤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장 가장자리를 걷다가 나무가 늘어선 곳에서 소총 총신으로 물체를 보고 그 방향을 향해 사격했다. 이에 용의자는 나무에서 나와 닛산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타고 달아났고, 오후 2시 14분께 I-95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

닛산 SUV는 도난 신고가 된 2012년형 포드 트럭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었고, 용의자가 있던 장소에서는 디지털

캠카메라, 2개의 가방, 조준경을 장착하고 장전된 SKS 계열 소총, 음식을 담은 검은 플라스틱 봉지가 발견됐다. 용의자는 당초 AK-47 계열의 소총으로 무장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기소장에는 SKS 계열로 적시됐다. SKS 계열 소총의 일련번호는 지워진 상태라 맨눈으로 읽을 수 없었다.

또한 용의자 라우스는 지난 2002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대량살상무기 소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2010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훔친 물건 보유와 관련한 다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 모두 중죄에 해당한다. 언론은 이번에 기소한 두 혐의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라우스를 구금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라우스는 판사가 소득에 대해 질문하자 “아마 주당 약 3천달러”를 번다고 했지만, 소득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저축한 돈이나 부동산은 없으며 하와이에 트럭 두 대를 갖고 있는데 그 가치가 “아마 대당 1천달러”라고 말했다. 재판 전 심리와 보석심리는 오는 23일,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기소인부절차는 오는 30일 각각 진행된다.

▶ 관련기사 2면

박세용 기자

미국 세입자 절반 렌트비 부담 커

미국 렌트 세입자 절반 정도가 렌트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센서스국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말 기준 4250만 세입자가 구 중 49.7%인 2100만 가구가 월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주택도시심개발부(HUD)는 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 등 거주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비율이 50%를 넘으면 심각한 위협 수준으로 간주한다.

전체 흑인 가구의 56.2%인 460만 가구, 전체 히스패닉 가구의 53.2%인 480만 가구가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 전체 아시안 가구의 46.7%은 100만 가구가 30% 이상을 지출했다. 백인(1040만 가구)의 비율도 아시안과 동일했다.

김욱재 기자

▶ 3면 ‘렌트비’로 이어집니다

디샌티스 “진실 알 권리”...플로리다주, 자체 조사

“500야드 이내 어떻게 접근했나”

한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경쟁자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다다가 사퇴한 론 디샌티스(사진) 플로리다 주지사가 15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해 연방 정부와 별도의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발생한 암살 시도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내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때 공화당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으며 ‘트럼프 대항마’로 떠올랐던 디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경선 사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국민들은 암살이 될 뻔한 이번 사건과 어떻게 그(용의자)가 전 대통령이자 현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500야드(약 457m)

앞서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

비밀경호국(SS)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호국 요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 골프장 밖에서 AK-47 유형 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해 사격했다.

경호국 요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약 한 홀 정도 앞서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300여m 떨어진 담뿍 속에 숨어있던 용의자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미터까지 치솟은 화염 16일 오전 9시 55분 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라포르테(La Porte)에서 석유-가스 등의 수송을 위해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이 폭발했다. 이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거대한 화염이 수십 미터 높이까지 치솟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물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축
창간 23rd 기념
워싱턴 한인 동포들의 길잡이가 된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중앙일보가 워싱턴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미주한인재단 - 워싱턴
Korean American Foundation - Greater Washington
회장 박 로사, 이사장 이 은애 및 임원 일동

“용의자 돈키호테 같다”...시민 영웅에서 범죄자로 기행 속출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 하려다 체포된 용의자가 미국인 백인 남성으로 밝혀진 가운데 기행과 미담이 혼재된 그의 좌충우돌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미국인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사진)를 체포했다. 1966년생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라우스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였으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온적인 정책에 실망해 반(反) 트럼프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 거주지가 하와이로 확인된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으며, 2018년 하와이에서 ‘캠프 박스 호놀룰루’라는 이름의 소형 주택 건설 회사를 시작한 것으로 링크드인에 게재되어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하와이 지역의 한 광고지는 그가 노숙인을 위해 건물을 기부했다고 소개

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심한 불만을 노출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서 죽을 용의가 있다”고 적을만큼 우크라이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서방의 미진한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등에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의 약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또 젊은 시절 강간범으로부터 피해 여성을 구한 영웅담으로 지역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으며, 과거 총기 소지 등 범죄 혐의로 8번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2년에 대량살상 무기 소지 혐의로 두 차례 기소당한 이력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은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과 세 시간 가량 총격 대치전을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 지역 신



문에 따르면 그해 12월 라우스는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이 자신의 차를 멈춰세우자 기관총을 겨누며 도주해 인근의 한 빌딩에 들어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했다. 약 3시간의 대치 끝에 경찰은 그를 무사히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그는 은폐 총기 소지 및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그보다 10여년 전인 1991년 당시 25살이었던 라우스는 같은 지역 신문에 강간 용의자로부터 여성을 구출

하는 것을 도운 ‘시민 영웅’으로 소개된 사실이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기행에 가까운 라우스의 여러 행적에 WP는 그가 “돈키호테식(quixotic·공상가적인) 과거를 지녔다”고 짚었다. 또 라우스가 과거 우크라이나에서도 갖은 기행으로 외국인의 용병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우크라이나 국토방위 국제군단’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라우스가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신병 수백명을 모집해오겠다”는 거짓 약속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그가 “쓰레기(shit)와 허풍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라우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외국인 자원병 부대인 국토방위 국

제군단을 창설하자 여기에 합류하고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라우스가 당시 군단의 모병 활동에 관여하려고 했지만 사실 “방해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라우스가 “여러 차례 군단 관계자들에게 불러 나가 헛소리를 멈추라는 주의를 들었지만 이것은 그를 멈추지 못했다”면서 “그는 대부분 꽤 기이했다. 나는 멀리서도 그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국토방위 국제군단 측도 이날 성명을 내고 라우스는 “절대 어떤 역량으로도 (우리 조직에) 참여했거나 관련 혹은 연결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라우스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으며, 라우스는 도주해 경찰과 추격전 끝에 인근 마틴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 정혜정 기자

“헬기날고 순찰차 140km 질주”...트럼프 암살시도 용의자 추격전

15일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도주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헬기와 순찰차 20여대를 동원해 긴박한 추격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마틴 카운티의 I-95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운전자 다니엘 로드리게스는 CNN에 경찰이 암살 시도 용의자가 탄 검은색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용의자를 체포한 현장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관 여럿이 우리 뒤에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는 것을 봤다”며 “닛산 차 한대가 속도를 높이며 차들 틈에 끼었다가 빠지면서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헬기 한 대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봤으며 점점 더 많은 경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그리고 경찰관 한 명이 도로 위에 차들을 세우고 차선을 정지시켰다”고 했다.

로드리게스는 당시 추격전이 “미친 짓”이었다면서 “닛산 차 한대가 우리 바로 옆을 맹렬히 달려갔고, 경찰차 여러대가 최소 시속 90마일(144km)로 달려갔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엔 순찰차 최소 스무대가 그 닛산 차 뒤에서 있었다”며 “나는 쌍안경을 갖고 있었고 경찰과 몇몇 요원들이 그 용의자에게 소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경찰이 그의 차량을 정차시키자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



소셜미디어(X(엑스))에 올라온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시도 용의자 체포 현장. (사진 엑스 캡처)

우스(58)는 순순히 차에서 내렸으며, “비교적 침착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골프장 주변에 총기를 남겨두고 그대로 도망쳤던 그는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체포된 용의자는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의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정혜정 기자

‘트럼프 죽음’ 생중계하려 했나... 암살용품에 ‘고프로’ 있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용의자가 사건 현장에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장비는 라이브 기능을 갖추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순간을 생중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15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이날 용의자가 총을 겨누고 있던 플로리다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내 덩불에서 조준경이 달린 AK-47 유형의 돌격소총을 발견했다.

용의자는 이날 덩불 근처에서 소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가 경호 요원에게 발각된 뒤 차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총기와 가방 2개, 고프로 카메라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

고프로는 스포츠나 레저 활동 촬영을 전문으로 개발된 ‘액션 캠코더’의



트럼프 암살 시도 현장서 발견된 AK-47 소총과 고프로, 가방. (출처:중앙일보)

대표적인 제품이다. 정확한 모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이후 출시된 고프로 제품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갖추고 있어 그가 암살 순간을 촬영할 계획이 아니었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의자가 두고 간 AK-47 소총은 전세계 분쟁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동소총으로, 세계 총기 역사상 최악의 살상 무기로 꼽힌다.

김은빈 기자

워싱턴 날씨 (°F)

18일(수)	76~67	21일(토)	75~61
19일(목)	78~66	22일(일)	73~60
20일(금)	79~64	23일(월)	73~57

9월 17일(화) 77~6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유,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점 \$660,000
SOLD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아리랑 무궁화 길에서 자부심 느껴요”

메릴랜드에 한인들을 기리는 ‘아리랑 산책로’가 생겼다.

메릴랜드 하워드카운티 소재 파타스코 밸리 홀리필드 주립공원 내 한 산책로에 ‘아리랑 무궁화 길(Arirang Mugunghwa Way)’이라는 공식명칭이 명명된 것이다.

아리랑 USA 공동체(회장 장두석)는 14일 파타스코 밸리 주립공원에서 ‘무궁화아리랑 길’ 표지판 제막식을 갖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제막식에서 장두석 회장은 “한인들이 이름을 듣고, 표지판을 보기만 해도 자랑스럽고,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리랑 무궁화길’을 방문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상기 시키며 존재감을 느끼기 바란다”면서 “이 장소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방문객 수도 늘어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리랑 USA공동체 측은 해당 공원에 지난해 무궁화 동산을 조성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노력했

메릴랜드주 파타스코 밸리 주립공원 내 ‘아리랑 무궁화 길’ 표지판 제막식 열려



표지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다. 당시 이 길을 ‘무궁화 동산 산책로’로 자체적으로 명명한 단체는, 1년만에 표지판 제막식을 통해 이 산책로를 ‘한인들의 것’으로 “공식화”한 셈이다.

한편 이날 제막식 행사에서는 아리랑 USA 공동체 장두석회장의 환영사

와 주미대사관 조기중 총영사의 축사 및 타우슨 대학 진철민 교수의 축가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공원 관계자, 클레런스 램 주상원의원, 마크장 주하원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박세용 기자

젊은 여성 과거보다 훨씬 진보적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사진)가 카머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면서 젊은 여성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젊은 여성들은 20여년 전에 비해 훨씬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다. 18-29세 여성의 40% 이상은 자신을 리버럴 성향이라고 답했다. 20년 전 이 비율은 30% 정도였다.

같은 기간 환경, 낙태, 총기 규제 등의 이슈에서 진보적인 답변이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리디아사드 갤럽 연구원은 “젊은 여성들은 단순히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좋아서 이쪽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점의 변화가 이끌었다”고 밝혔다.

AP 통신의 조사에서도 지난 2020년 대선에서 30세 미만 여성의 65%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 계층은 원래 동세대 남성보다 30세 이상 여성계층과의 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출마했던 2008년 대선부터 두드러졌다.

2016년 대선부터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번 대선에는 특히 작년 연방대법원 낙태 위헌 판결 이후 젊은 여성 계층의 리버럴 결집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대 여성의 낙태 찬성비율은 20년 전에 비해 거의 20%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결집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옥채 기자

2024년 미국인데... “머릿니 극성”

공립학교 학생 등교 계속 허용 문제

최근 워싱턴 지역 학교마다 머릿니(Pediculosis humanus capitis)에 감염된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당국에서 제대로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염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워싱턴 지역 공립학교는 원래 머릿니가 발견될 경우 치료 가 모두 끝날 때까지 등교를 금지해 왔으나,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학생 등교를 막을 경우 학생과 가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머릿니 치료에 들어갔다는 확인만 거치면 등교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머릿니에 감염된 학생들이 머릿니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감염시키는 것이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다른 감염병



질환을 지닌 학생들의 등교를 막는 것처럼 머릿니 감염 학생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등에서 학부모 청원운동이 진행되기도 했으나 교육청은 CDC 지침과 학생 인권 등을 이유로 등교금지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머릿니는 사람 두피의 피를 먹고 사는 참깨알만한 날개 없는 작은 기생 곤충으로, 머리카락에 붙기 위해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사용한다. 암컷 머릿니가 다 자라면 알(사케)을 낳는다.

머릿니의 수명은 약 30일이며, 암컷

은 살아 있는 동안 하루에 7-10개의 사케를 낳을 수 있다. 머릿니는 누구에게나 기생할 수 있다. 감염된 인물과 직접 접촉하면 옮을 수 있다. 감염자의 솔, 빗, 의류, 침구, 가구 및 자동차 인테리어와 같은 개인 소지품을 공유하는 등의 간접 접촉으로 옮기도 한다.

머릿니에 감염될 경우 보통 두피와 목 뒤, 귀 뒤쪽의 가려움과 긁힌 상처가 발생한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머릿니에 감염될 경우 연방식품의약품국(FDA)이 승인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이방지 제품을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약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이를 쉽게 제거한다고 알려진 민간요법은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초 혼합물, 마요네즈, 올리브 오일, 티트리 오일, 석유젤리, 등유, 가솔린, 페인트 희석제 및 테레빈유 등은 오히려 감염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옥채 기자

자녀에게 족쇄 채운 어머니 기소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자신의 두 어린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족쇄를 채웠던 어머니와 그 동거인을 체포했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여성 용의자(47)와 남성 용의자(29)는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외출을 할 때 7세 남자어린이와 5세 여자어린이의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 아파트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1면 ‘렌트비’에서 이어집니다
주택소유 가구를 포함한 미국 전체 가구의 매월 중간 주거 비용은 2022년 1354달러에서 2023년 1406달러로 증가했다. 전체 주택소유 8570만 가구 중 1880만 가구가 매월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했다.

9세 남자어린이는 용의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파트의 다른 성인 룸메이트에게 스마트폰을 빌려 족쇄가 채워진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성인 누나에게 전송했다.

성인 누나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8월16일 용의자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아이들은 현재 생부가 보호하고 있다.

여성 용의자는 2019년 당시 16세였던 자신의 딸을 폭행해 기소됐으며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폴스처치, 센터빌, 페어팩스, 뉴포트뉴스, 리치몬드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0/7-10/13 → 전화 예약 필수!

애난데일 사랑방 이전 (10월)
(로우 코스트, 베스트케어 치과 2층)

“행복한 추석,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한인 리더 “K팝·드라마 이어 이젠 K기빙”

<giving·기부와 나눔>

KACF, LA서 ‘기빙 서밋’ 개최 “한인사회, 베푸는 사회 돼야”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이 14일 라인 LA 호텔에서 200여 명의 한인 리더들과 함께 기부와 나눔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빙 서밋(Giving Summit)’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LA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인 첫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김버림 코리아아메리칸리더스 인 할리우드 설립자, 캐서린 엄 한인가정상담소장, 줄리 하 ‘프리 철수 리’의 감독 등이 패널로 참석해 눈부신 성장을 이룬 한인 사회가 이제 남을 위해 베푸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복 KACF 회장은 “힘든 위치에 있는 개인과 가정이 자립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이미 K팝과 K뷰티, K드라마로 잘 알려져 있다”며 “이제는 K기빙(Giving·나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앤디 김 하원의원은 나눔이라 함은 대부분 돈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



앤디 김(앞줄 오른쪽 3번째) 후보가 14일 라인 LA 호텔에서 열린 ‘기빙 서밋(Giving Summit)’ 행사에 참석 ‘기부의 힘’을 주제로 공개토론을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가 원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이뤄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인 사회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들이 많으며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반아시안 정서 퇴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인이라고 해서 한인 사회 문제에만 국한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미국 전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더 많은 지지와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티 차 이블린앤월터하스 펀드 대

표 역시 한인 리더들이 나눔 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한인만을 위한 나눔으로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인의 투표 독려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다른 19개 언어로도 똑같은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더욱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판매된 200석이 매진됐다. KACF측 관계자는 “한인 1세는 물론, 1.5세와 2세 등 다양한 리더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기빙 서밋은 2017년 뉴욕에서 시작된 KACF의 연례행사다.

김영남 기자

보청 기능 탑재 ‘에어팟 프로2’... FDA 승인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프로2(사진)를 보청기로도 쓸 수 있게 됐다. 연방식품의약품(FDA)이 애플의 보청기 소프트웨어를 승인하면서다. 국내에선 규제 당국 허가 절차를 밟은 뒤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DA는 전날 애플 에어팟 프로2에서 처방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청기 소프트웨어를 승인했다. FDA는 “경도~중등도 난청이 있는 11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전문 보청기를 쓰는



사람과 유사한 효과를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소리 증폭 수준과 소음 속 언어

이해도 측정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FDA 승인에 따라 국내에선 향후 iOS18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뒤 에어팟 프로2를 보청기로 쓸 수 있게 된다. 이 운영체제를 탑재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무선 이어폰과 연결한

뒤 주파수·음량 등에 대해 5분 정도 청력 테스트를 받으면 청력 프로필이 작성된다. 이후 에어팟이 보청기로 전환되면서 착용자의 청력 수준에 맞춰 음악과 소리를 자동으로 증폭시키는 것이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백만원대 보청기에 비해 에어팟 프로2는 249달러로 저렴해 접근성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FDA는 지난 2022년 처방전 없이도 약국이나 온라인 등에서 환자가 보청기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한 적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해 허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수연 기자



최일순(오른쪽) 전 한인축제재단 이사가 13일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축제재단 소송전 양상

현 회장 등 선출 무효 판결에 “판결문 도착하면 항소” 밝혀 제명 이사 3명 10월 복귀 예고

LA한인축제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사를 총괄하는 이사회는 전·현직 이사끼리 이사 자격을 놓고 또다시 소송전을 예고했다. 양측은 법원 판결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3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에서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이사진 측(김준배·박윤숙·최일순)은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10월부터 축제재단 이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커티스 진)은 전직 이사진인 원고 측이 축제재단과 현 이사진을 상대로 자격정지 및 제명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지 9월 13일자 A-1면〉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23년 1월 23일 이사회가 알렉스 차 현 회장을 비롯한 브랜든 아벤 박씨를 신임 이사 선출한 것은 무효가 됐고, 그동안 해당 이사들의 신규이사 1명(로렌스 김) 선임 등 모든 의사결정도 법적 구속력을 잃게 됐다.

원고 측 이사 김준배씨는 “(법원

이 인정한) 우리 이사들은 축제재단에 복귀한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이사회에 복귀한 뒤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고 측 이사들은 다음 주 열리는 ‘제51회 LA한인축제’는 관여하지 않고, 현 이사진이 진행하도록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준배씨는 “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권리를 조속히 회복하길 원하지만, 올해 축제 성공을 위해 이번 축제가 종결될 때까지 모든 법적 권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 이사진 3명이 이르면 10월부터 축제재단 복귀를 예고한 가운데, 패소한 피고 측 현 이사진은 1심 판결 항소를 예고했다.

양측에 따르면 판사 서명이 담긴 판결 주문이 도착하면 6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알렉스 차 회장은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제명됐던 이사들의 이사회 복귀자격 정지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 이원기 변호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뢰인들의 이사 자격은 곧바로 회복됐다”며 “항소가 접수되면 2심 판결까지 1년 6개월이 예상된다. 이사 자격 정지신청 등 1심 판결을 뒤집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제51회 LA한인축제는 오는 26~29일 LA한인타운 서울 국제공원에서 열린다. 김형재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집 크기는 줄었는데 가격은 올랐다

주택도 슈링크플레이션 심화
5년간 6.4% 축소...값은 39% ↑
인플레이, 건설 비용 증가 영향
150개 대도시 중 18곳만 커져

주택 시장에서도 집 크기는 작아지고 구매자들이 지출은 더 많이 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USA투데이 허프프론트팀이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중간 주택 크기가 5년 전보다 128스퀘어피트 줄어든 데 반해 가격은 12만5000달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이후 전국 중간 주택 크

기는 1996스퀘어피트에서 1868스퀘어피트로 6.4% 작아졌는데 평균 가격은 32만 달러에서 44만5000달러로 39.1%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기업이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는 행태로 눈에 보이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주요 150개 대도시 지역 중 최근 5년간 주택 크기가 늘어난 곳은 18곳에 불과했다.

크기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로 중간 주택 크기가 22% 줄어들었지만 스퀘어



최근 5년간 주택 면적은 줄고 면적당 가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트당 가격은 153달러에서 233달러로 5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USA투데이 허프프론트팀의 조사 담당 데이나 드레이크는 “가격 상승에도 주택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인플레이션, 건설 비용 증가, 지속적인 경제성 위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건축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에 직면한 건축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성 유지를 위해 주택 가격을 올리거나 면적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슈링크플레이션이 가장 심한 지역 톱 10을 살펴보면 노스캐롤라이나 4곳을 포함해 7곳이 남부지역이

었다. 남부지역이 많은 이유는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이 인구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됐다.

거주자 유입으로 급증한 주택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건축업자들이 소형 주택을 건축한 데다가 토지 부족 가운데 가구 수를 최대화하기 면적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드레이크는 “이론상으로는 소형 주택을 건축하면 비용이 줄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수요와 비싼 자재비로 인한 가격 상승을 상쇄하기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글: 그래픽=박낙희 기자

중국산 전기차 100%·태양전지 50% 관세 부과

USTR, 27일부터 인상-“중국 불공정 무역 정책·관행 불변”
대선 앞두고 시행-트럼프,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공약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 등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무역대표부(USTR)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정례 검토를 완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오늘 확정된 관세 인상은 노동자와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위대한 정책과 관행을 겨냥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노동자와 기업을 옹호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USTR 결정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7.5%에서 102.5%로 올라간다.

또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적용된다.

이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USTR은 또 2025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 대해 인상된 관세 50%가 부과한다.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25%)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USTR은 무역법 301조 검토를 통해 일부 제품의 경우 관세 인상률이나 시점을 변경했다.

의료용 마스크 및 수술용 장갑의 관세는 25%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5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장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연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산 주사기의 관세는 당초 설정했던 50%의 두 배인 100%로 인상하되 영유아의 음식물 섭취용 주사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한 바



중국업체 BYD의 전기차들이 출고되고 있다.

[로이터]

있다.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 발표 시기 결정은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공개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단호한 기조를 재확인함으로써 제조업 종사자 등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당기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며 자동차-철강 산업이 집중된 주들에 구매하는 가운데 인상된 관세가 시행된다”고 전했다.

보편관세 10%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테리토리얼뱅크 신규 인수 제안 받아

〈뱅크오브호프 합병 추진 은행〉

투자가 앨런 랜던 서한 전달
다음달 10일 주주 투표 결정

뱅크오브호프(회장 케빈 김)가 인수 합병(M&A)을 추진 중인 하와이의 테리토리얼세이빙뱅크(이하 테리토리얼뱅크)가 새로운 인수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테리토리얼뱅크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전직 은행가이자 투자자인 앨런 랜던이 지난달 26일 조건부 인수 제안이 담긴 서한을 은행 측에 보냈다. 랜던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뱅크오브호프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서한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주당 12달러에 테리토리얼뱅크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뱅크오브호프 측이 제시한 인수가보다 높다.

다만 테리토리얼뱅크 이사회 측은 인수 제안을 받고 난 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여전히 뱅크오브호프와의 합병이 안정성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주들에게 합병을 추

천한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들로부터의 인수자금 조달이었다. 랜던 측은 인수자금을 제공할 투자자들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인수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또 제안서에는 당국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뱅크오브호프와 테리토리얼뱅크의 합병 여부는 10월 10일에 열리는 긴급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8월 14일 영업마감일 기준으로 테리토리얼뱅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투표를 참여할 수 있다. 합병안이 승인된다면 주주들로부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앨런 랜던의 인수 제안에 대해서 “테리토리얼뱅크의 이사회는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랜던의 제안이 더 낮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합병을 위한 규제 승인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 또한 이사회 판단 근거였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맞춤형 자산 절인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SVC
HEALTH CARE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정복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백악관 “인플레이션 정상 수준으로 복귀 중”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핵심 관계자가 “인플레이션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노동 시장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방 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7일과 18일 열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022년 3월 이후 유지해온 통화 긴축정책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얼 브레이너드(사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6일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대담에서 “지금 미국은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어 “근로 가정과 중산층의 지불 능력과 그들을 위한 더 많은 기회 창출을 위해 계속 노

현재 관심사는 지난 20년 사이에 최고 수준인 현행 기준금리(5.25~5.5%)를 얼마나 내릴지에 쏠리고 있다.



15일 에미상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과 남우주연상을 각각 받은 사와이 안나(왼쪽)와 사나다 히로유키(오른쪽) [로이테] 2 일본 배우 사나다 히로유키에게 남우주연상 트로피 건네는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

피로 얼룩진 멕시코 독립기념 연휴 사흘간 247명 피살

카르텔 간 분쟁, 곳곳 유혈사태 공식 행사도 줄줄이 취소



멕시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여겨지는 독립기념일(독립선언일·9월 16일)을 앞두고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247명이 피살된 것으로 16일(현지시간) 집계됐다.

멕시코 안보당국은 13~15일에 32개 주(멕시코시티 포함) 전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247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타가 보도했다. 날짜 별로는 각각 13일 71명, 14일 89명, 15일 87명이다.

가장 폭력적인 사흘을 보낸 지역은 과나후아토주(28명)였고, 시날로아주와 멕시코주(각 24명), 누에보레온주(20명), 푸에블라주(17명), 바하칼리포르니아주(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시날로아에서는 수괴급 갱단원들의 잇단 체포 이후 시날로아 카르텔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두 분파, 로스차피토스와 로스마요스 간 분쟁으로 그 피해 양상이 특히 잔혹했다고 안보당국은 전했다.

예컨대 콜리아칸 시 남부 멕시코 15번 고속도로에서는 손이 결박된 남성 5명이 머리에 솜베레로(챙이 넓은 모자)

를 쓴 채 숨겨 있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시날로아와 과나후아토 등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 문제로 독립기념 외집 공식 행사가 취소됐다.

고질적인 치안 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명절과 공휴일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급증하는 편이다. 지난해 '망자의 날'(죽은 자의 날) 휴일에는 하루 동안 98건의 살인 사건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군 당국과 국가방위대는 이날 독립기념일 행사 중 하나로, 대통령궁 앞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대규모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위용을 과시했다.

일본 배경 미드 ‘쇼군’, 에미상 18관왕

“외국어드라마 새 역사”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남우주연상 등 휩쓸어

일본의 17세기 정치적 암투를 그린 미국 드라마 ‘쇼군’이 미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시상식을 휩쓸었다.

15일 로스앤젤레스(LA) 피콕 극장에서 열린 제76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쇼군’은 주요 부문인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사나다 히로유키), 여우주연상(사와이 안나) 등 8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2년 전 ‘오징어 게임’으로 같은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정재에 이어 사나다 히로유키는 아시아계 배우로는 역대 두 번째로 이 상을 거머쥐었다.

사나다와 사와이 모두 일본 배우로는 처음으로 에미상 주연상을 받는 기록을 썼다.

CNN 방송은 “쇼군이 비영여권 시리즈로 에미상 25개 부문 후보에 오른 데 이어 작품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며 역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쇼군’은 17세기 초 일본의 정치적 음모를 다룬 제임스 클라벨의 동명 역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대사 대부분이 일본어로 촬영됐으며 미국 디즈니 계열인 FX 채널에서 자막을 달

고 방영됐다. 제작자와 감독 등 주요 스태프는 미국인이었지만, 출연진은 주연부터 조연, 단역까지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언론은 이 드라마가 올해 방영된 첫 시즌부터 에미상 다관왕을 차지하면서 후속 시즌의 흥행 전망을 한층 더 밝게 했다고 평가했다.

코미디 시리즈 부문에서는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더 베어’(The Bear)가 11관왕을 차지했다. 이 드라마의 주연배우인 제러미 앨런 화이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코미디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을 가져갔다.

다만 코미디 시리즈 부문의 작품상은 ‘나의 직장상사는 코미디언’(원제 Hacks)에 돌아갔다.

미니시리즈(Limited Anthology Series·Movie) 부문에서는 넷플릭스 히트작 ‘베이비 레인디어’가 남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각본상 등을 수상하며 선전했다.

할리우드 명배우 조디 포스터는 ‘트루 디텍티브: 나이트 컨트리’(True Detective: Night Country)로 미니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포스터는 과거 영화 ‘양들의 침묵’ 등으로 오스카(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차례나 받았지만, 에미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이나 한국계 배우가 참여한 작품은 이번 에미상 시상식에서 수상이 불발됐다.

박찬욱 감독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획·연출·각본 등 제작을 총괄한 ‘동조자’는 조연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미니시리즈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의 영광은 안지 못했다.

탈북 관련 다큐멘터리 ‘비온드 유토피아’도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부문(Exceptional Merit In Documentary Filmmaking) 후보에 지명됐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한국계 배우 그레타 리는 애플TV+의 드라마 ‘더 모닝 쇼’로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조연상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다만 ‘패스트 라이브즈’의 그레타 리는 미니시리즈 여우주연상 시상자로 무대에 올라 조디 포스터에게 트로피를 건넸다.

지난해 ‘성난 사람들’로 미니시리즈 남우주연상을 땀던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은 드라마 시리즈 남우주연상 시상자로 나와 일본 배우 사나다에게 트로피를 안겼다. 한국계를 비롯해 아시아계 배우의 한층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애플 최신 아이폰16 사전 주문 부진



애플이 지난 9일 공개한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6의 사전 주문이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애플 주가는 3% 하락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인 대만 TF인터내셔널 증권사의 귀밍치는 16일 보고서에서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아이폰16의 첫 주말까지 사전 주문 판매량이 약 3천700만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이폰16은 애플이 지난 9일 신제품 발표 행사를 통해 처음 공개한 최신 스마트폰이다. 지난 13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해 오는 20일 한국과 미국 등에서 동시에 출시된다.

아이폰16의 사전 주문량은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15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대비 약 13% 줄어든 수치다. 이는 아이폰 시리즈 가운데 인기가 높은 고급형 아이폰16 프로 모델에 대한 관심이 기대보다 약한 결과라고 귀밍치는 분석했다.

그는 또 “아이폰16 프로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낮은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주요 판매 포인트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16 출시와 함께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탑재될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이다. 당초 아이폰16 출시와 함께 탑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내달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iOS18) 업그레이드 버전부터 일부 기능이 탑재 예정이다. 특히, AI 모든

기능이 아이폰에 담길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밀러 타박 플러스 시장 수석전략가 매트 말리는 “아이폰16에 대한 수요 약세는 좋은 징후가 아니며, 특히 곧 다가오는 연말 판매 시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며 “주가가 의미 있게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49분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10% 하락한 215.60 달러에 거래됐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곱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축

창간 23rd 기념

한인 동포들의 든든한 벗,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앞으로도 한인 사회를 위해
더욱 정진하는 언론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부동산 경매 상담 환영합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주택매매, 상가매매 상담
전화 환영합니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대학 가서 ‘탕자’ 되지 말고 고등학생들 오세요”

JC브릿지미니스트리 송정훈 변호사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12학년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수련회가 열린다.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다.

특히 지금은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

반면, 대학 진학을 앞둔 청소년들도 있다. 대학 진학은 곧 새로운 세계관과 직면하는 시기다. 그동안 교회와 가정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세속적 가치와 상충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송정훈 전도사(JC브릿지미니스트리 대표)는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송 전도사는 현재 거주 지역에서 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바이올라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말에는 중고등부 영어권 전도사로도 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송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준비했다. 송 변호사로부터 수련회를 준비한 배경, 이유 등을 들어봤다.

-왜 수련회를 준비하게 됐나.

“2년 전이었다. 한 장로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자녀가 신앙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안타까웠다. 그 장로님은 대학에 간 딸과 아들이 ‘탕자’가 됐다고 했다. 부모로서 자녀의 구원 문제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 힘든 시기, 영적으로 굳건하게

대학 진학은 새로운 세계관 직면 가정, 교회서 배운 것 상충할 수도

에 대한 안타까움, 절박함, 미안함 등을 토로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눈물의 메시지가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

-청소년에게 지금이 왜 힘든 시기인가.

“대학 입시를 경험한 시기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에서 거절을 당해봤을 것이다. 상처 입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부를 잘해도 자신이 목표한 학교에 가는 것이 힘든 경우도 많다. 게다가 대학에 가더라도 세속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상충해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다. 또, 대학에 가서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찾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 신앙을 떠난다.”

-이러한 집회가 필요한 이유는.

“어쩌면 학생들에게는 지금이 인생의 첫 전환기다. 그 시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부모들이 강권해서라도 자녀들에게 권면해주면 좋겠다. 친구들과 함께 참석해도 좋은 경험이 될



JC브릿지미니스트리의 송정훈 변호사(왼쪽)와 강사로 나서시는 앤디 김 목사

것이다.”

-신앙이 흔들리는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가.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녀가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지난해 첫 집회 때도 부모들이 다 와서 자녀들이 집회하는 동안 옆에서 함께 기도를 해줬다. 부모가 기도해준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난 집회 때 에피소드가 있나.

“마음이 너무 힘든 한 학생이 있었다. 집회에 참석하면서 결국 강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더라.

또 다른 학생은 고깃집에서 힘들게 파트 타임을 해서 번 돈의 일부를 십일조로 헌금하겠다고 하더라. 수백 달러 정도였다. 그 학생 입장에서 큰돈이었을 텐데 그만큼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마태복음 6장 10절이 주제다. ‘Your Kingdom Come’이 주제다. 강사는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영어권 담당으로 사역했던 앤디 김 목사님이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냐고 묻더라. 오직 예수와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했다. 이번 집회는 복음만 증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나.

“숙식하면서 진행되는 집회다. 2박 3일간 오전 집회, 저녁 집회가 있다. 또, 학생들이 겪게 될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혼란 때문에 여러 의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각종 변증학 세미나도 준비된다. 대학 생활을 미리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교인들과 만남의 시간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과 미리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조언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학생들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 시간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

-JC브릿지미니스트리는 어떤 단체인가.

“JC는 ‘Jesus Christ’를 의미한다. ‘브릿지(bridge)’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영적인 다리 역할을 하자는 게 의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도 방향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잘 설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역을 한다.”

-변호사로도 활동 중인가.

“현재 거주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갖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신학은 바이올라대학에서 했다. 교회에서 영어권 중고등부 전도사, 평신도로서 고등부 교사도 했다. 현재 미주 지역 한인 신학교 등에서는 변증학, 미국법 관련 과목도 강의하고 있다.”

장영지

기독교와 사회물리학

선교적 다문화 사역

한인 이민교회가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지 않다.

이민 2~3세대는 청소년 시기에 한인교회에 머물면서 한글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글 교육과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고 영어권 예배에 참여하고 한식으로 차려진 점심을 먹는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이나 직장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한인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민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은 이런 현상을 ‘조용한 탈출(silence exodus)’이라고 부르며 동질민족, 동질문화로 구성된 한인교회에 개선을 촉구하는 경종을 울렸다.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민자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머물면서 중대형 교회에 회원이 되어 안정된 이민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소형 도시에 있는 한인교회와 대도시에 있지만 작은 한인교회들은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다문화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다민족, 다문화 교회가 미주 내 이민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웨슬리 신학원 교수이면서 건강한 교회 컨설턴트인 밥 화이트셀은 5가지 다문화 교회 유형을 소개하면서 동질문화 교회가 다문화 교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8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섯 유형은 문화적으로 동화된 교회(The cultural assimilation church), 다문화가 섞인 교회(The multicultural blended church), 어머니와 딸 관계의 다문화 교회(The multicultural mother-daughter church), 다문화 협력교회(The multicultural partnership church), 다문화 동맹교회(The

multicultural alliance church) 등으로 나뉜다.

북미 다민족 네트워크의 임찬혁 디렉터는 미주 한인교회의 다민족 다문화 사역을 의존형, 상호보완형, 독립형으로 크게 구별하고 세부적으로 미국교회가 벌이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 사역을 포함시켜 12개 유형을 제시한다. 특별히 미주 한인교회가 동질문화를 유지하면서 다문화 사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역모델과 다세대 모델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이민 1세대와 이민 미래세대를 다문화 공동체로 구별하였다.

다문화 사역을 위해서는 ‘미주 한인교회가 한인인 아닌 타민족을 전도하고 회심한 그들을 한인교회에 머물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해

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이민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 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 교회가 있는 지역과 목회자와 교인들이 다민족 다문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문화 사역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외부적으로 다문화 사역을 실천하려면 지역사회의 다민족 주민을 섬겨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찬양팀이 다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21세기 들어오면서 K문화가 음악, 음식, 웹툰, 드라마, 영화 등으로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이르기까지 확산하고 미국과 유럽 주류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

아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조류에 힘입어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장점과 함께 한국적 영성을 활용한 다문화 사역을 창조할 수 있다. 그동안 한인 자녀들에게 실시해 오던 한글학교 교육을 영어권 현지인들을 위해 개방할 수 있다. 영어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인교회를 자연스럽게 방문하도록 이끌면 한인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다문화 사역은 미주의 작은 한인교회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미주 한인교회의 목회자는 다문화 사역을 위해 현지화된 다문화 사역의 신학적 이론과 목회 정신을 수립하고 한인교회의 성도는 선교적 다문화 사역을 생활화하여 미국의 미래 교회의 다문화 사역과 영성을 한인교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조철수 목사·맥알렌세계선교교회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1,250,000	\$750,000	\$699,000	\$569,000
**방4/화3.5/차고2. Many Upgraded. **주인이 잘 관리한 집.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방3.화 2.55/차고 2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허터, Bathrooms)	**방4/화3.5/2 Assigned. 세지붕.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웰빙모아 Wellbeing More

가을 할인



★세일기간★
9/1~9/31까지
선착순 한정세일

여성의류

50% OFF

COUPON

겨울이불

50% OFF

COUPON

잠옷, 내복, 모자, 가방, 강아지옷

20% OFF

COUPON

시즌이불

20% OFF

COUPON



깊이가 다른
1도 제어기술!

혜택이 가득한 가을 세일 이벤트

숙면, 기술을 써!

대한민국 숙면의 기술 | 나비엔 숙면매트

온수매트
10% off!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쾌적 숙면 가전/무전자파/1mm 초슬림매트/분리난방/보조난방,
숙면모드/살균모드/다중안전장치/차일드락/타이머 등등



카본매트
20% off!

경동나비엔 카본매트
쾌적 숙면 가전/직류 저전압/전자파 안심/
분리난방/Wi-Fi/스마트히팅케어/슬립케어
시스템/원격외선/이지워셔블/다중안전시스템

한미우체국 택배 대리점 전화 주문시 당일 발송 모든 행사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동시 실시



애난데일점 (703) 256-5500
7133-D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애난데일 공바우 식당 옆

센터빌점 (703) 830-7755
5961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롯데, 하하핑크 옆

영업시간
9:30am ~ 8pm
(365일)

이탈한 보수 잡으려면, 야당 엄두 못 내는 국가 과제 도전을

세계 AI 의료 2026년 588조원 전망
미 의료계 72% 도입, 17% 연내 계획

의사 대체 아닌 인간과 협력 모색
허위·편향 정보 제공은 경계해야

앞으로 10년 대형병원 운명 걸려
한국도 의료 혁신 연구·투자 시급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과도한 기대, 환멸, 점진적 이해, 그리고 안정적 사용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과 함께 인공지능(AI) 버블론이 신문 기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AI가 과도한 기대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산업별 AI 적용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다. 향후 10년 내 의료시스템에서 AI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대형 병원들의 운명은 AI 활용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의료 분야, 80년대부터 AI 적용 최전선
항상 의료 분야는 AI 적용의 최전선이였다. 멀리 1980년대 중반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유행하였을 때도 가장 유명한 AI 시스템 중의 하나는 '마이신'이라는 의료 진단 시스템이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IBM의 울론로지 기반 '왓슨'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병원에서 도입되어 인기를 얻었다. 현재는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이 의료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많은 논문과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 루닛과 뷰노의 의료 영상 판독 성과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주로 특정 의료 분야의 진단에 국한되어 있어, 의료 시스템 전체나 대형병원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챗GPT 3.5 이후 등장한 범용 AI(AGI)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AI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한 대학병원 교수와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점이 언급되었다. 단순히 영상 판독 AI를 이용하여 진단 정확성을 87%에서 91%로 높이는 것은 임상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는 영상 판독 외에도 환자의 기저 병력, 가족력, 기대여명, 사회·경제적 여건, 환자 및 보호자의 치료에 대한 선호도 등의 복합적



미칠 영향력의 규모를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모든 의사·간호사 LLM 통해 환자와 소통
물론 AI의 의료 적용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AI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편향된 의료 지식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 등의 법적, 윤리적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할 만한 충분한 시장 잠재력과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 문제는 결국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들은 이미 AI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료기관 중 하나인 메이요 클리닉은 여러 투자자를 모아 대규모 AI 투자를 진행 중이며, 현재 200개 이상의 AI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칭화대에서는 '에이전트 병원'이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LLM을 통해 환자와 소통하는 대규모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들은 기존 의료시스템으로

는 2년이 걸리는 1만 명의 환자를 며칠 만에 진료하면서도 93%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 진단을 넘어 상담, 검사, 진료, 후속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미래의 의료는 AI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연구,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AI와 인간이 어떻게 상호 보완하며 새로운 병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의료계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도 AI를 이용한 진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넘어 새로운 병원 모델을 실험하고 설계하는 대규모 투자와 연구가 시급하다. AI는 단순히 의료 기술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의료 혁명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의료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인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의 업무는 진단 외에도 진료 기록 검토 및 작성, 의료 보험 청구용 진단서 작성, 타 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 의뢰서 작성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포함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50명 이상의 환자, 5분 내외의 진료 시간은 비정상적이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더욱이 향후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 팬데믹 위험의 증가, 왜곡된 수가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별·분야별 편중 등의 문제는 현 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 출간된 『메디컬 레볼루션』의 저자 피터 리 박사는 AI가 의료 분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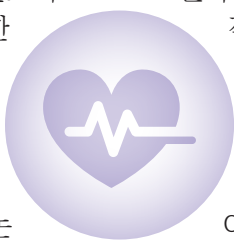
가져올 혁신을 예고한다. 피터 리 박사는 한국계로, 카네기멜론대의 컴퓨터 공학과 학과장, 미국 고등연구계획부(DARPA)의 컴퓨터 개발 책임자를 거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권위 있는 학자이다. 몇 년 전 필자가 연세대의 정보시스템을 책임지고 있을 때 연세대 캠퍼스를 방문했고 당시 캠퍼스를 안내해 드리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도 그분의 깊은 학식과 폭넓은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이 책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의료 진단과 환자의 대화 사례를 통해 AI가 의학 지식 뿐만 아니라 환자의 환경을 이해하고 사회성 있는 진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코 과장된 표현이 없는 그분이 이 책에서 인공지능이 향후 의료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며 향후 인공지능의 의료산업의 영향에 대한 나의 생각에 확신이 더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컴퓨터 학자들이 AI를 "통계적 앵무새

(기존 문헌을 의미 없이 짜깁기해 알맞은 단어를 문장에 넣어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로 여기는 반면, 피터 리 박사는 AI의 의식이나 문장 이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 중 한 명인 하버드 의대 교수인 아이작 코헤인 박사가 챗GPT의 의료 지식이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 왔던 많은 의사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한 것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고객 상담, 리포트 작성, 문서 기안, 프로그래밍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약관이나 규정 준수 등에 대해서도 검색 증강 생성(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기법 등을 사용하여 기업 내부의 자료를 이용하면서도 보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게임, 영화 산업과 함께 의료 산업은 AI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맥킨지의 최근 조사 결과는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준다. 미국 의료 산업의 72%가 이미 AI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며 17%가 올해 안에 실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 총 89%가 AI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보고서에 세계 AI 의료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7%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불과 2년 후인 2026년에는 그 규모가 약 588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AI가 의료 산업에



지난해 9월 열린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박람회서 AI 앵블런스 시연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명품백’ 무혐의 가능성 커졌다...김건희 여사, 보폭 더 넓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출범이 임박했다. 공식 조직이 설치되면 김 여사의 보폭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제2부속실) 사무실의 위치를 잡아서 공사하고 있다”며 “부속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 때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한데, 용산은 그런 장소가 없다”며 “마땅한 데가 없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제2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하는 영상을 몰래 찍어 지난해 11월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영상으로 정치적 과장이 커지자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동행 이후 5개월여 공개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김 여사의 행보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김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실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명품백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검찰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 10일 서울 독심수난구조대 건물 앞에서 근무자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과 화장품 등을 받은 행위가 청탁 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등 6개 혐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정했다. 이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넘겼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지난 9일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시사했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15일을 끝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 전 총장의 발언과 행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뒤 이를 만에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

에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대통령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려 했으나 수심위까지 끌고 간 것도 이 전 총장이었다. 게다가 이 전 총장은 당초 공언과 달리 임기 내 사건 결론도 무산시켰다. 검찰이 김 여사 사건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 전 총장의 이러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총장이 수심위로 끌고 간 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잘됐다”며 “사건이 깔끔하게 끝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 때 한·일 정상 부부 동반 만찬에 참석하는 등 ‘배우자 외교’는 이미 정상화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독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는 등 사후 공개 형태의 일정도 늘리고 있다.

김 여사는 추석 연휴 중인 15일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장애아동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한 뒤 간식 배식을 도왔다. 이후 김 여사는 평소 인력 부족으로 청소하기 힘들었던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을 청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여사는 봉사를 마치며 “오늘(15일) 방문이 시설에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역대 영부인이 그랬듯 김 여사가 공개 일정을 수행하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었다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달리 명품백 사건은 대통령 당선 뒤의 일인 만큼 김 여사가 도의적으로 사과 표명을 할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대통령실 인사는 “기자회견 형태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사과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중복 죄과 목사에겐 몰카 사기 피해를 본 건데 사과를 하는 게 맞느냐”며 “좋은 의도로 사과하고도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이재명 “종교계, 의료문제 중재 나서달라” 진우스님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사태와 관련,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이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중재나 유희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만이 이야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고 있다”며 “누군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지고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갈등을 끼고 있지만 파벌로 가선 안 된다”며 “조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해 서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통합과 조정이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인데 최근에는 갈등과 적대감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의장인 진우스님은 이 대표 제안에 “이 문제는 해결이 절실하고 시급하며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



진우스님 예방한 이재명 대표.

밖에 없다”며 “명절이 지나고 종지협 차원에서 만나거나 정부와 대화하는 등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진우스님은 다만 “결론을 내는 게 아니더라도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은 양쪽이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우스님은 아울러 “여야 어느 쪽이든 융합을 잘하는 분이 진정한 지도자”라며 “특히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수장인 만큼 더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북핵 문제 등 논의하는 제68차 IAEA 총회 의장 수임

한국이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겸 주빈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열리는 IAEA 총회에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 우크라이나 원자력 안전·핵 안보, 이란 핵 문제, 중동문제, 오커스(AUKUS)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세계 안보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함 대사는 의장 수락 연설에서 “평화, 발전, 번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IAEA의 특별한 기여를 증진하는 데 총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EA 총회는 전 세계 178개 회원국에서 3천 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가하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다. 이사회 논의의 사안 결정 및 권고, 결의 채택, 이사국 선출,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이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총회 의장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1989년 제33차 총회에서 한국과학재단 정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개회식에서 한국이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근모 박사가 의장을 맡은 바 있다.

한국은 지난 2021~2022년 IAEA 이사회 의장을 수임한 데 이어 2년 만에 총회 의장으로 선출돼 IAEA 양대 정책 결정 기구 의장을 맡는 성과를 거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5위 국가, 원전수출 역량 보유 6대국으로서 IAEA에서의 우리의 리더십과 지위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수잔 김

우리말 바꾸기

‘때려칠’ 수 없는 이유

무언가 그만두고 싶을 때 ‘때려치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지겨운 다이어트, 이제 때려칠 거야” “난 이미 때려친 지 오래야” 등과 같은 경우다. 그러나 ‘때려치다’는 잘못된 말로, 이를 활용한 ‘때려칠’ ‘때려친’ 등도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

하던 일을 그만두는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는 ‘때려치다’가 아니라 ‘때려치우다’이다. 따라서 앞의 예문은 “지겨운 다이어트, 이제 때려치우려 거야” “난 이미 때려치운 지 오래야” 등과 같이 고쳐야 바른 표현이 된다.

“그만두다”는 의미로 ‘때려치다’를 쓸 수는 없지만 “애먼 전봇대를 발로 때려 치는 바람에 발가락이 부어올랐다”에서와 같이 ‘때리다’와 ‘치다’를 띄어 쓸 경우에는 문장이 성립한다. ‘때리다’와 ‘치다’를 각각의 독립된 의미의 단어로 보고 띄어 쓸 경우 ‘때려 치다’ 표현이 가능하다. ‘껴어치다’ ‘집어치다’도 비슷한 경우다. “쓸데없는 소리는 꺼어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일을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집어쳐라” 등과 같이 활용돼 쓰이곤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껴어치우다’ ‘집어치우다’가 바른 표현이므로 이를 활용한 ‘껴어치우고’ ‘집어치우라’로 고쳐 써야 한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엔 ‘때려치우다’는 속된 표현이라고 풀이돼 있다. 따라서 가급적 ‘그만두다’ ‘그만하다’ 등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란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정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인권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한다. 즉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2021년 유일영도 10대원칙을 수정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더 심하게 제한되고 유일독재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주민들끼리 상호감시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한 군중신고법과 2020년 외부 문화를 유입, 침투, 전파하면 최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2021년 북한 MZ세대들의 사상단속을 강화하고 가정교육을 의무화한 청년보장 교양법, 2023년 자본주의 문화에서 유입된 언어를 금지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하여 과거보다 더 심하게 외부 문화 유입을 막고 있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제2장에는 ‘괴뢰말 찌꺼기 박멸’이라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아내가 연장자인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성별 차별, 여성 차별, 장애인 차별 등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성별은 거주 지역, 거주 형태, 노동 당 입당, 진학, 승진 등 삶의 모든 것을 결

정하는 최대 요인이다.

장애인들도 거주 제한, 강제 이주, 강제 불임 수술 등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속박’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탈북민들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에 충격을 받는다. 국내 어디든 갈 수 있고, 동네에 있는 구청에 신청만 하면 며칠 만에 여권을 받아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자유가 그토록 소중한 것인 줄 미처 몰랐다고 한다.

한국에는 성분제도 같은 것은 없다. 도둑의 아들도 자신이 노력하면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된다. 여성 또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차별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북한말을 쓴다고 또는 사투리를 쓴다고 구박하면, 구박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북한에서 한국식 표현을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안타깝다.

남북이 자꾸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고 있는바, 동 결의는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인권이사회 내 최초의 결의다. 특히 동 결의는 신기술과 인권 관련 모든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포괄적,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모든 이해당사자의 효과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제 논의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독자마당

베토벤 흥내



천재 음악가로 알려진 베토벤은 노년에 눈이 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남달라 노년에도 창작 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전해 들은 일설에 의하면 베토벤은 다른 천재 음악가들과는 달리 어릴 때 음악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베토벤의 아버지는 아들의 음악적 재능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피아노 한 대와 함께 베토벤을 참고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가 버렸다고 한다. 베토벤은 이 참고 안에서 많은 음악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내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55세 되던 해였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LA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닐 때였다. 당시 토요일에는 일하지 않

아 낮에도 학교에 가곤 했다.

어느 토요일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느 구석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 가보니 한 강의실에서 나는 기타 소리였다. 강의실을 들여다보니 젊은 학생들이 기타를 배우고 있었고 기타 선생님께서 나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의 기타 배우기가 시작됐다.

지금 내 나이가 86세이니 기타를 치기 시작한 것도 여든 31년이 되었다. 내가 가장 자신있는 기타 연주곡은 베사메무쥬다. 최근엔 ‘인생은 네 박자’라는 한국 대중가요를 기타로 연주하며 노래도 부른다. 매일 이 두 곡은 빠짐없이 연주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음악을 최소한 3곡 정도 더 연주하면서 노래한다. 하루에 최소 5곡 이상은 연주를 하고 노래도 하는 셈이다.

나도 나이가 있어서인지 언제부터인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런 증상이 몹시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완전한 귀와 눈으로 기타를 연주한다.

서효원·LA 거주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트 검사
6. 출원권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For Sale
Open House 9/21/2024 (1-4pm)
패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장 3.2 레벨 싱글, 로빈슨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스 대학, 트윈부룩 로,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VAC, 새 핫워터탱크, 새 마루, 새 카펫(지하 방, 풀베스, 우드 fireplace) 선풍, 페리오, 워크아웃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판권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남부 카리브해

12박13일
12/7~12/19
\$1390부터 (인사이드)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 고


윤태웅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9/23~1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대박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990+항공	대박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대박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대박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대박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외)	8박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단풍특선)	10박11일 \$2990+항공	대박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3590+항공	
10/29~11/08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11일 \$29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부터 (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아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두바이	13박14일 \$11,500+항공	
3/17~3/29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10일 \$3990+항공	
4/14~4/20	봄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4/28~5/06	정통 동유럽 9박10일	\$3390+항공	
4/30~5/13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4/30~5/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07~5/13	발칸 크로아티아 6박7일	2990+항공	
5/13~5/23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월 정통 **서유럽**

서유럽의 핵심 도시들을 한번에!

9/23~10/3 **대박** \$3,490+항공

10/9~10/19 **대박**

12월 이태리 일주

밀라노-베니스-볼로냐-피렌체 로마-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12/23~12/29 \$2,3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3월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3/17~3/29/25 \$5,490+항공

9월 정통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9/18~9/26 \$3,290+항공

2025 1월 파타고니아

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구 끝' 천국과 우주가 공존하는 여행자들의 지상낙원

1/14~1/24/25 \$6,790+항공

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3/17~3/24/25 \$3,190+항공

9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9/18~10/1 \$4,390+항공

1월 신비의 **인도**

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 아그라, 핑크시티자이푸르, 파테푸르시크리

1/28~2/9/25 \$3,390+항공

3월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3/27~4/5/25 \$3,990+항공

9월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9/25~10/1 \$2,890+항공

2월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2/17~2/26/25 \$3,590+항공

4월 남프랑스

수세기 역사를 보유하고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한번에 둘러보는 여행

4/14~4/20/25 \$2,990+항공

(봄방학 특선)

10월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10/8~10/18 \$3,190+항공

2월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2/20~3/5/25 \$11,500+항공

5월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5/6~5/16/25 \$2,890+항공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4-2026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 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11일 \$2990+항공

3차 9/24~10/4 **대박**

4차 10/15~10/25 **대박**

5차 10/22~11/1 (단풍특선) **대박**

6차 10/29~11/8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5일 **싱가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카** \$999+항공

3박4일 **대만** \$690+항공

3박4일 **상가폴** \$790+항공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성극 **다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9/19, 10/1, 10/17, 10/29, 11/14, 12/12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6일 \$1350

대행버스출발: 9/30, 10/07, 10/14, 10/30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주 여행

일출발 8박9일 \$1500+항공

가을 단풍 여행

3박4일 **천심/몽뜨랑블랑** \$950

10/7, 10/14

당일 여행 **캠버랜드 기차여행** \$159

10/17, 10/25, 10/26 **단체여행 원영**

2박3일 **스모키 마운틴** \$859

10/24

뉴욕 동부명도 해안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3일 \$650

뉴욕 **1박2일** \$399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몽골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199(주말)

서부 4대 캐년 5박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7일 \$1550+항공 **일출발**

옐로스톤 3박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일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September 17, 2024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경력, 전문 분야 중요, 학비 부담도 따져야

의과대학원 선택 사항 미국의 의과대학원은 100여 곳이 넘는다. 학부와 달리 누구나 의사가 될 수 있기에 졸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유층 일부는 명문 의대를 나온 의사를 선호한다. 아주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가지 고려사항을 알아보자.

첫 번째, 학교 수업 환경과의 편안함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의대 입학 절차는 온라인 가상 면접으로 바뀌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서로 만날 기회가 줄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학교가 어떤 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수업이 큰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경우와 작은 그룹에서 진행되는 경우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수업을 살펴보고 수업 외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경력 목표와 커리큘럼의 적합성을 살펴야 한다. 자신의 경력 목표, 커리큘럼, 교육 방식이 잘 어우러져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일부 학생들은 미리 공부하고 와서 질문하는데 초점을 두는 수업인 '플립 스타일'을 좋아하는 반면, 다른 학생은 강의를 선호한다. 세 번째, 카운슬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의대의 카운슬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다. 카운슬링은 대규모 그룹으로 이뤄지는지 아니면 일대일로 진행되는지, 처음 2년 동안 카운슬러와 얼마나 가까운

지 알아야 한다. 메인 카운슬러 외에 3학년이나 4학년 초반에 전문 카운슬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레지던시나 이후의 경력에 대한 카운슬링이 항상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위치 요인을 무시하지 말라. 학교의 위치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재학중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과 더 가까워야 할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 조부모와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만약 미혼으로 생활비를 낮추고 공부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세탁이나, 집에서 만든 식사 또는 자동차 수리에 대한 조언을 위해 집에서 가까운 의대에 다니는 것이 매우 좋을 수 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선택하면 방학동안 왕복 비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다섯 번째, 학비도 중요하다. 큰 보조금이나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면 재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나 두 번째 요인일 수 있다. 합격 통지를 받으면 학교의 입학처장과 이 문제를 논의해야



의과대학원의 카운슬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이 좋다. [DALLE3 생성]

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의대생은 엄청난 학자금 대출 부채를 지게 된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전문 분야에 진출할 학생만이 비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의대에 입학하기 전에는 해당 전문 분야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장할 수 없고, 들어간다 해도 좋아할지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군대에 있거나 공공 서비스 직책에서 일하는 동안 일정 기간 상환한 후 연방 학자금 대출이 면

제되는 프로그램에 있지 않는 한 대출이 탕감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른 경우지만 학부모가 학비 전액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그 계획이 무산되는 일도 있다. 의대 학생에게 학교의 가장 좋은 재정 지원 제안을 물어보고, 고려 중인 다른 요소들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장병희 기자

2024년 최고 의과대학원

(US뉴스 선정)
학부 대학의 순위를 매년 발표하는 US 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의과대학원을 비롯한 전문대학원의 순위도 발표한다. 다양한 요소를 이용해서 선정하는 이 순위는 특히 좋은 의과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다. 대학 학부 순위를 선정하는 기관과 언론매체는 많지만 의대 순위는 US뉴스의 순위가 독보적이다. 의과대학원 순위는 2가지 부문으로 나눠 제공되고 있다. 우선 교육기관으로서의 의과대학원 순위인 연구(research) 부문과 질병 질환 치료에 초점을 두는 치료기관으로서의 의과대

학원 순위인 주요 진료(Prime Care) 부문으로 나뉜다. 두 부문은 산정요소마저 달라서 완전히 다른 순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포모나에 있는 웨스턴유니버시티 오브 헬스사이언스의 경우, 주요 진료(Prime Care) 부문은 상위권인데 비해 연구(research) 부문은 하위권이다.

US뉴스는 특히 올해부터 종전의 순위 발표 방식을 바꿨다. 100여 곳이 넘는 의대를 1위부터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을 버리고 두 부문 공히 티어1부터 티어4로 나뉘었다. 티어1은 상위권이고 티어4는 하위권이다. 중앙일보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순위도 티어1만 소개한다. 장병희 기자

» 2면 '의과대학원'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5 in 1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질식하는 한국 대학을 살리려면

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

며칠 전 필자는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실을 정리하고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연세대 의과대학으로 부임하기 위해서다. 미국 유학부터 시작한 타향살이 17년 만의 고국행이다. 처음엔 박사학위를 받으면 곧 돌아와서 모국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런데 운 좋게 연구 환경과 교수 처우가 좋은 미국과 홍콩의 대학에 재직하게 되니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이 쉽지 않았다.

다년간 교수채용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필자 자신이 구직자가 되기도 했었다. 심지어 연세대 교수 채용 계약에서 명하는 날에도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신입 교수 채용에 관여하고 있었다. 해외 대학의 인재 유치 환경과 한국내 대학 간의 간극을 생생히 경험했다.

북미 대학, 외국인 교수·학생 50% 넘어

대학에 뛰어난 인재 유치가 왜 필요할까. 이는 대학이 연구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과 혁신의 전초 기지이자 인재 양성 및 유치의 가장 중요한 채널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2024년 세계발전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혁신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산학 협력을 주문한다.

가령,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mRNA 백신인 화이자·바이오텍 코로나 백신을 만든 이는 터키 출신 이민자인 독일 대학교수 우우르 샤흐(Ugur Sahin) 박사과 그의 아내 외즐렘 튀레지(Ozlem Tureci)다. 또한 옥스포드-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은 영국 옥스포드대 제너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혁신이 산학협력으로 이뤄짐을 잘 보여주는 예다.

또한, 모든 연구자는 대학에서부터 길러지며, 대학은 인재 유치의 핵심 채널이다. 미국 대학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실리 콘밸리는 전 세계 인재가 모이는 곳인데, 외국인인 경우도 미국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많다. 가령,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7대 기술 기업(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중 4개의 최고경영자(CEO)가 외국 태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구글의 순다르 파차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유학생 출신이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어릴 때 대만에서 이민 온 1.5세대.

낮은 연봉, 열악한 연구 환경이 발목

대학은 연구개발·혁신의 기지 열악한 처우로 인재 확보 실패

교원 연봉, 경쟁 대학 절반 수준
등록금 자율, 성과급 확대 필요

외국인 교원·학생 대폭 늘리고
우수 인재 소득세 혜택 검토를



한국내 대학도 더이상 한국인만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북미 대학은 물론 홍콩·싱가포르 내 아시아 정상권 대학의 외국인 교수 및 학생의 비율은 50%를 넘는다. 세계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용광로처럼 녹아 혁신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 비율이 5~10%에 불과한 대한민국과 차이가 크다. 대학은 다양한 인재를 빨아들이는 채널이 되어야 발전한다.

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가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비관적이다. 핵심적 이유는 낮은 연봉과 큰 강의 부담 같은 불리한 교수 처우 및 연구 환경이다. 대학교수도 생활인이고 대학교수 채용에도 시장 원리가 작동하므로 처우가 좋은 곳으로 고성과자들이 이동한다. 능력이 뛰어난 세계적 학자들이 한국 대학으로 오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연봉은 얼마나 차이가 있다. 미국 상위권 대학의 경제학 신입 조교수 연봉은 2억원이 훌쩍 넘는다. 홍콩·싱가포르도 이와 비슷하고, 여기에 더해 월 수백만 원의 집세 보조를 제공한다. 연구 중심 대학의 교수는 이렇게 연봉이 높지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중심 대학의 교수 연봉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억원 수준이다.

한국내 주요 대학은 조교수 초봉이 7000만원 수준이고, 정교수 연봉도 1억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호봉제가 적용되므로 능력 있는 교수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강의 시수에도 차이가 있다. 필자는 미국 코넬대에서 1년에 평균 2과목을, 홍콩과기대에서는 2.5과목을 가르쳤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연구 중심 대학교에서조차 1년에 3~5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필자가 종신 교수직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의과대학 교수의 연봉이 다른 과에 비해 높고 강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 컸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용병처럼 살지만, 대한민국에선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매력적이었다.

물론 한국내 교수의 연봉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는 높다. 하지만 연구 개발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까지 말아야 한다. 높은 수준의 연구자는 그에 걸맞게

대우하고, 연구를 게을리하는 학자는 연봉을 삭감하거나 심지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 기반 장학금’ 늘려 인재 길러야

이런 의미에서 16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은 대학의 경쟁력에 큰 피해를 주었다. 대학이 일정 수준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 장학금(2형)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부적절하다. 대학 등록금의 자율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소득에 따른 장학금도 대폭 확장하자. 필자가 재직했던 코넬대의 학비는 연간 1억원 수준인데, 이중 약 4000만원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 쓴다. 부모의 연 소득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학비가 무료다. 우리도 등록금을 상향 조정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서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돈 걱정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필자가 그동안 재직했던 학교는 교수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잘 갖춰져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 해 정부나 기업의 프로젝트를 할 이유가 없다. 연구할 시간도 모자라는 판에 각종 정부 위원회와 외부 강연이 주요 수입원이 되는 일은 더욱 없다. 대신 연구를 잘하면 성과가 연봉에 잘 반영된다. 반면 성과가 없으면 테뉴어(종신교수)가 안되어 해고되고, 테뉴어를 받아도 꾸준히 연구하지 않으면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

해외와 한국내 대학교수 겸직 허용해야

예를 들어 홍콩과기대는 매년 인건비 예산이 평균 3% 정도 오르는데, 연봉은 1.5%만 자동으로 오른다. 나머지 예산으로 연구 성과에 따라 기본급을 조정한다. 그 결과 부교수 및 정교수의 연봉은 업적이 따라 천차만별이다. 은퇴 무렵이 되어도 조교수와 비슷한 사람도 있고, 연봉 5억원을 넘는 교수도 있다. 반면 한국 대학은 연구를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외부 활동을 통해 과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는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만다.

언어도 문제다.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외국인 교수가 안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KDI school)가 좋은 본보기다. 43명의 교수진 중 외국인 교수는 3명이지만, 교수 회의 및 교내 이메일이 영어로 진행된다. 학생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다. 그 결과 외국인 교

수 정착이 수월하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관공서, 금융기관 등을 활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반면, 한국내 대학에 재직 중인 많은 외국인 교수가 배우자의 한국 선호로 어쩔 수 없이 한국내에 체류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이방인처럼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에서 영어가 한국어와 동시에 쓰여야 외국인 교수가 진짜 학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스웨덴과 대만, 중국 광둥성처럼 고학력 외국인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 감면도 고려하자. 숫자도 부족하고 값비싼 국제학교도 과제다. 가령 포항에는 포항공대에 부임한 외국인 교수가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국제학교가 없다. 국제학교가 80개나 존재하고,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인구 700만명의 홍콩과 극명히 비교된다.

또한 KAIST처럼 교수들에게 해외 대학과 한국내 대학에 겸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는 국제 네트워크 강화로 이어진다. 해외 인재가 한국 내 정착도 돕는다. 반면 서울대에 부임하려면 기존의 학교를 사직하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외국 대학교수의 입장에서는 해외 연구비를 포기해야 하고, 한국에 적응하는 기간이 시간 낭비가 된다.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에 갔 부임한 베트남 출신 트린 팜 교수의 인생 역정을 소개했다. 사실 그는 필자의 코넬대 마지막 박사 과정 제자였다. 그녀와 한국 행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외국 학자 유치의 힌트를 얻었다.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해당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때 한국에서 받은 환대는 박사 이후 한국행을 택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부모님이 계신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한몫했다.

선진국 안착을 노리는 대한민국에 혁신은 필수다. 핵심 과제는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대학이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지난번 퍼스펙티브(중앙일보 7월 4일 자 24·25면) ‘최상위 학생 모두가 의사 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에서 지적한 극단적인 의대 쏠림과 함께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한 인재 활용의 대 표적 실패다. 이대로 놓아두면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려 ‘혁신 부족’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도 짙어질까 애타게 시간이 간다.

김현철 연세대의대 교수

9월 HOT 리스iting

부동산 투자, 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운고민,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의논해주세요.

\$69만 우드브리지 니본 힐링 상급골 방4+ 화3 차고2	매수면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56만 달빛론 콘도 방2개 28평 교통은 메트로와 인접 타운하우스 콘도	임대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락빌 \$3,500 방3+/화3 차고 1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인스 대역 부근 \$63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저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진료 내용

-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 메이플랜드 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대입 들여다보기

나중에 후회할 대학 선택하지 않으려면 명성 이외의 나와 맞는 요소 꼭 살펴야

학생이 향후 4년을 보낼 대학을 실수로 잘못 선택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 가서 마음을 붙이지 못해 방황하거나 심한 경우 고통스럽기까지 할 수 있다. 잘못된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명성 이상의 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대체로 학생들은 대학 리서치를 할 때 숫자와 대학 이름에 현혹되기 쉽다. 랭킹이 몇 번째인지, 어느 대학이 더 유명한지 아닌지를 대학 선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그럼 최고의 대학 경험을 하려면 랭킹 1위의 대학에 가야 할까? 랭킹 순서대로 대학 경험의 질이 달라지는 걸까? 명성과 권위가 있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이 따라온다.

그러나 정작 내가 4년간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면 해당 대학의 학위가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A 대학이 나와 더 잘 맞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B 대학이 더 유명하고 몇 단계 랭킹이 높아서 이 학교를 선택했다면 B 대학에 재학하면서 후회가 없을까?

때로는 대학의 명성과 혜택은 같이 간다. 내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고 어떤 아이비리그 대학이 미국에서 최고의 심리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별다른 주저함 없이 그 대학을 선택할 것이다.

만약 뉴욕 시티에서 살면서 다양한 자원과 활동을 누리고 싶다면 컬럼비아 대학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대학에 특별히 마음이 끌리지는 않지만 단지 합격하기 어려운 대학이라는 이유로 선택하려 한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의견을 말하는 것은 때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자녀의 장래가 달린 일이다 보니 부모가 큰 압박을 줄 때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학에 진학할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대학 지원자로서 스스로 질문해 보라. 내가 그 대학을 좋아해서 선택하는지, 아니면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선택하는지.

부모와 함께 앉아서 솔직하게 대화하라. 대학에 진학한 뒤 결국은 내가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하다. 지금 당장은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행

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간 뒤 정작 나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 대학 생활이 불행해질 수 있다.

셋째, 스스로 정직해야 한다. 관심 있는 전공과 필요에 대해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주위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졸업 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이 전공을 고려하는 것은 아닐까? 특정 전공을 생각한다면 '왜' 이 전공에 지원하려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열정과 실용성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러나 열정과 실용성 사이에서도 균형을 찾는 방법들이 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지하게 원하는 공부와 직업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넷째, 지원하려는 대학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간과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 한번 마음에 들면 그 대상의 모든 면이 완벽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 마찬가지로 어떤 대학을 정말 좋아하면 약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세상에 완벽한 대학은 없고,

대학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만약 내가 어떤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특정 대학에 가려고 하지만 그 대학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 프로그램이 매우 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대학에 정말 가고 싶지만, 재정보조 패키지를 열어보니 학비 부담이 엄청나다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대학별로 장단점을 숙고하는 것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캠퍼스를 방문하는 것이다. 웹사이트로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만 실제 학교를 방문하면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재정적, 시간상으로 허락한다면 캠퍼스에 직접 가서 재학생을 만나보고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수업을 들어보라. 최종적으로 나에게 가장 맞는 대학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올 가을학기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곧 대학 입시철의 주인공이 된다. 8월 1일부터 사립대 지원서인 커먼앱(Common App)과 UC 지원서가 오픈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빈센트 김·어드미션 매스터즈 카운슬러

에듀 포스팅

과목 선정·특별활동·교내 활동·일찍 시작...새 학기 명문대 진학 준비의 4대 요소

모든 학생이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맞이했을 것이다. 학부모님들 또한 새 학년의 시작과 함께 대학 진학 준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시기이다. 대학 입시 준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으로 마음이 바쁠 수 있겠다.

대학 준비, 특히 명문대 준비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다. 이 시기는 아직도 과목 변경이 가능한 시기인 만큼, 이를 잘 알고 정확한 준비의 첫걸음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명문대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요소들을 짚어보며 새 학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1. 과목 선정과 난이도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친구들이 듣는 과목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학 과목의 난이도일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9학년에서 Algebra II를 시작하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AP Pre-Calculus로 시작할 수도 있다. 이는 이미 수학 난이도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AP 과목의 가

산점이 더해지는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성적을 비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른 학교의 학생이 AP 과목을 16개나 들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만큼의 AP 과목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현재 학교에서 최대한 선택할 수 있는 AP 과목들을 들었는지를 검토한다. 따라서 자녀의 학교 내에서 같은 학년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Honors 및 AP 과목을 듣고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고등학교에서 9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내신 성적도 명문대 진학의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목 변경 신청 기간이 아직도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2. 특별활동을 특별하게 준비하기

첫 번째 단계인 성적이 심사 관문을 통과했다면, 이제는 특별활동이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전세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계획

이라면, 자신의 지역에서 잘하는 것을 넘어서, 주 또는 전국 단위의 특별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명문대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자녀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전국 에세이 대회 등 대학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 높은 대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대회에 꾸준히 도전해 보는 것이 좋겠으며 이런 수상 경력은 경쟁력 있는 여름 캠프 지원과도 연결된다.

3. 교내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학생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어떤 학생인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인 학생 중에는 학교 내에서는 활동이 저조한데, 학교 밖에서는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입학 사정관은 학생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교내에서 소극적인 학생에 교외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은 당연히 입학 사정관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학교 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직책을 맡는다면, 학생의 리더십과 열정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이다.

4. 일찍 시작하기

고등학교에 올라와 대학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은 자녀의 목표 대학에 따라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에 맞춰 꾸준히 특별활동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대회 준비 등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많은 학부모님의 실수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준비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전적인 교과 과목과 AP 과목들의 선정에 따라 대회 준비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물학에 관심이 있는 경우, 9학년에서 처음으로 생물을 공부하게 된다. 학생이 미국 전국 생물 올림피아드에 도전하려면 적어도 9학년 전까지 생물을 배우고, 11학년 2월에 있을 올림피아드를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학교부터 이 과목을 공부해 왔다면 충분히 이러한 전국 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명문대 합격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며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수원·원장 보스턴 에듀케이션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혈관 청소 세종송보감에서 —
면역력 최고 세종후코이단까지



카톡으로 'sejong15'을 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萬事亨通 萬事血通

세종명품으로 행복한 추석 되세요

추석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명품

<p>혈관대청소 세종 송보감 FORTE</p> <p>혈관 대청소, 혈액순환에는 세종송보감 건강의 민사형동은 민사혈통입니다.</p>	<p>"더 좋은 후코이단을 기다리셨어요?" 세종 후코이단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혈량, 최고순도 후코이단으로 개발된 세종후코이단 GMP 마크, 원산지까지 청정 후코이단 세종후코이단 항암효과와 대명사 표고버섯까지 함유된 세종후코이단 	<p>"속~쓰림 힘드시죠?" 세종 속편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타메이트연구소가 연구개발한 세종속편환 식약처(KFDA)가 효능을 인정한 세종속편환 위장장애, 속쓰림 등을 해결한 천연제품 세종속편환 	<p>"소변관리, 이젠 걱정 없어요?" 세종 요로청보감</p> <p>방광염(오소스레), 요로감염증, 요실금으로 힘드세요? 신장, 방광, 요로 건강엔 세종요로청보감이랍니다.</p>
<p>저곳저곳한 관절통증으로 힘드셨죠? "이제부터 편히 웃으세요!" 세종 관절보감</p> <p>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손목, 발목 등 관절인물 관절, 연골이상에 식약처에서 효능이 인정된 세종관절보감이 편안하게 도와 드립니다.</p>	<p>세종 기관지청보감 현대인의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까지 해결하세요</p> <p>하루1정 복용, 60Capsules 2면, 1박스 4개월</p>	<p>깜박깜박하세요? 치매 예방! 세종 뇌보감 Brain Health Formul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억력개선, 건강증개선, 치매예방 인지기능개선, 뇌혈행개선을 위한 뇌보약 두뇌영양을 통한 기억력개선 촉진 	<p>장건강을 위한 500억 균수 세종유산균</p> <p>당뇨잡는 당뇨비타민 세종여주</p> <p>보름만으로 면역을 지키세요 세종후코30정</p>

신제품 세종 후코펫 출시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GMP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효과, 면역력증대, 체질개선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상완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상남자가 '드랙퀸' 변신? 무모한 도전 덕에 더 뜨거운 삶

(여장 남자)

영화 '파일럿'에선 취업을 위해 여장을 한 조정석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선 드랙퀸(화장과 의상으로 과장된 여성성을 연기하는 남자)이 아무리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스커트를 입어도 남성성을 감추기 힘들다. 아니, 애초에 누구 속이려는 게 아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숭배하다 못해 직접 몸에 두르고 스스로를 만족 시킬 뿐.

이런 남자들이 10년 전만 해도 미친 사람 취급 받았지만, 지금은 독특한 성향을 인정받는다.

10주년을 맞은 뮤지컬 '킹키부츠'의 주인공 롤라도 한몫 했다. 2014년 초연 당시 상남자 포스로 '여자 옷을 입어야 자신 있는 남자'에 빙의했던 무명 배우 강홍석은 뮤지컬어워즈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현재 '하테스타운'과 '알라딘'까지 3개의 브로드웨이 대형 뮤지컬을 동시에 섭렵하고 있는 '강홍석의 시대'를 열어준 것도 롤라다.

제리 미첼이 가장 아끼는 한국 배우

"롤라는 누가 해도 사랑 받는 역할이에요. 요즘 '쥘리'도 인기지만, 10주년이 되니 초연 때 더블캐스팅이었던 오만석 선배가 많이 생각나네요. 정말 많은 가르침에다 밥까지 먹여주시면서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초연 끝내고 뉴욕에 공연 보러 갈 때 주신 용돈으로 지금의 아내와 함께 '알라딘'을 보며 언젠가 지니 역할을 꼭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게 이번에 이뤄진 거라 감사한 마음이 더하네요.(웃음)"

'킹키부츠'는 슈퍼스타 신디 로퍼의

음악과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핫한 창작자 제리 미첼의 연출·안무로 토니상 6개 부문을 휩쓴 작품. 제리 미첼이 가장 아끼는 한국 배우로 알려진 게 강홍석이다. "처음엔 드랙퀸이면서 이성애자인 롤라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제리 미첼이 미국·영국에는 그런 사람 너무 많으니 어렵게 접근하지 말라더군요. 분명 존재하고 있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즐겁게 전하는 캐릭터가 롤라예요. 아마 제리 미첼이 자신을 투영한 것 같아요. 공연 때마다 꼭 오시는데, 말이 안 통해도 주변을 밝게 만드는 분이거든요. 65세에 복근도 엄청나시고, 정말 매력적인 분이죠.(웃음)"

그는 요즘 10년 새 달라진 세상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다. 초연 당시엔 캐스팅되고도 드랙퀸에 대해 잘 몰랐을 정도로 생소한 문화였다. "롤라의 기분을 느껴보려고 풀착장 상태로 대학로에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구나 싶고, 택시 안 공기도 너무 이상했죠. 관객도 대부분 뮤지컬 마니아인 젊은 여성분들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이 주변인들을 데려오면서 점점 달라졌죠. 얼마 전 작은 콘서트를 했는데, 롤라처럼 꾸미고 온 '오빠'들이 정말 많았어요. 누구나 즐길 만한 공연인데,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 좋네요."

스토리는 평범하다. 아버지 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두 청년 찰리와 롤라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며 성공을 향하는 성장 스토리인데, 강홍석도 트라우마가 있었다. "얼굴이 큰 트라우마였어요. 뮤지컬을 처음 접할 땐 조정석 선배나 주원 같은 훈남들의 직업이



7일 개막한 뮤지컬 '킹키부츠'(11월 10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의 주역 강홍석. 10년 전 무명배우였던 그는 이 작품으로 단숨에 스타로 났다. 최영재 기자

라 생각해서 꿈도 안 꿰죠. 최근까지도 누가 외모를 칭찬하면 늘 부정했는데, 한 팬이 편지를 주셨어요. 자기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말에 한방 먹였죠. 이제 제가 잘생긴 사람이라 믿으며 살기로 했어요.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알려줘서 고마워요. 정말 훈남이라고요?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을 위해 어제 이

더위에 한강을 11km나 뛰었죠. 초연 오디션 영상을 보면 저도 깜짝 놀라요. 지금이 더 어려워서요.(웃음)"

사실 강홍석은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상남자 롤라다. 특히 해외 버전의 롤라들은 선이 고운데, 그를 상남권 캐릭터로 이끈 건 흑인음악이었다. "어려서부터 흑인이 되고 싶을 정도로 흑인 음악을 좋아했어요. 힙합, 모타운 재즈, 아프리카 음악까지 들었죠. 그런데

제가 엄청 좋아하던 빌리 포터가 브로드웨이 초연 롤라였던 거예요. 그분 영상을 보고 갑자기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죠. 너무 아름답고 섹시했거든요. 28년간 남성성만 키워왔는데, 나도 한번 아름다움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다음날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흑인음악 애정 담은 자작곡 싱글 내기도 그림에도 롤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다. 100kg가 넘는 거구가 한 달 20kg를 감량하는 등, 무모한 도전이 삶을 바꿔 놓은 셈이다. "지니처럼 '딱 내꺼'도 있지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해본 적 없었는데, 세상 사는 데 정답은 없나 봐요. 중요한 건 뜨거움이죠. 전에도 제가 워낙 뜨거웠거든요. 뭐 하나 없을까 열심히 찾았죠. 뮤지컬 판도 분명 팝의 세상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클래식 쪽에선 '버터 페이스'는 애기도 들었지만, 지금 브로드웨이가 다 팝 천지가 됐네요."

그의 도전은 진행 중이다. 흑인음악에 대한 사랑을 담은 자작곡 싱글 앨범도 냈고, 최종 목표는 뮤지컬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라랜드"나 '드림 걸즈' 보면 너무 부럽거든요. 우리 이야기로 그런 걸 꼭 만들고 싶어요. 제가 봉산탈춤과 마당극을 전공하다시피 했고, 마당극을 세계화시키는 게 꿈이죠. 꼭두각시놀음을 요즘 감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황정민 같은 배우가 출연하고 정재일 같은 분이 음악을 맡아 팽과리·장구·피아노·드럼까지 더한 멋진 작품을 찍을 생각을 하면, 심장이 떨립니다." 강홍석은 지금도 뜨거웠다. 유주현 기자

김하성, 정규시즌 출전 불투명

MLB닷컴 "9월 말~10월 복귀" 실트감독 "상태 좋아지지 않아"

어깨 통증 탓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입성 후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IL)에 오른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재활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 정규시즌에는 복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MLB닷컴은 지난 11일 샌디에이고 부상 선수들의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김하성의 복귀 시점을 '9월 말 또는 10월 초'로 점쳤다. 샌디에이고는 9월 29일에 올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김하성의 정규시즌 내 복귀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샌디에이고는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앞서가며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재활이 길어지면 김하성은 10월 포스트시즌에서야 복귀전을 치를 수도 있다.

김하성은 지난달 18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중 상대 투수의 견제 때 1루에 슬라이딩하고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더그아웃으로 들어왔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이를 후인 8월 20일 김하성을 열흘짜리 IL에 올렸으며 등재일은 19일 자료 소급 적용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마이크 실트 샌디에이고 감독은 "확장 로스터(28명)를 적용하는 9월 2일까지는 김하성이 IL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부상 후 3주가 넘는 현재까지 김하성은 돌아오지 못했다. MLB닷컴은 "김하성의 재활이 구



포스트시즌에야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김하성. [로이터/USA투데이스포츠]

단이 기대한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며 "김하성은 타격 훈련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력으로 송구하지 못한

다"고 전했다. 실트 감독은 "재활 중인 선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후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다"며 "김하성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우리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김하성이 이탈하자, 실트 감독은 김하성의 공백을 막고자 '단기 처방'으로 메이슨 매코이를 유격수 자리에 세웠다. 하지만, 김하성의 재활이 길어지자 10일 시애틀 매리너스와 경기에서 산더르 보하르츠를 올 시즌 처음으로 유격수로 출전시켰다. [연합뉴스]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 E-mail : lee@jaelaw.com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희생**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9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92 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골든 듀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Golden Dew Jewelry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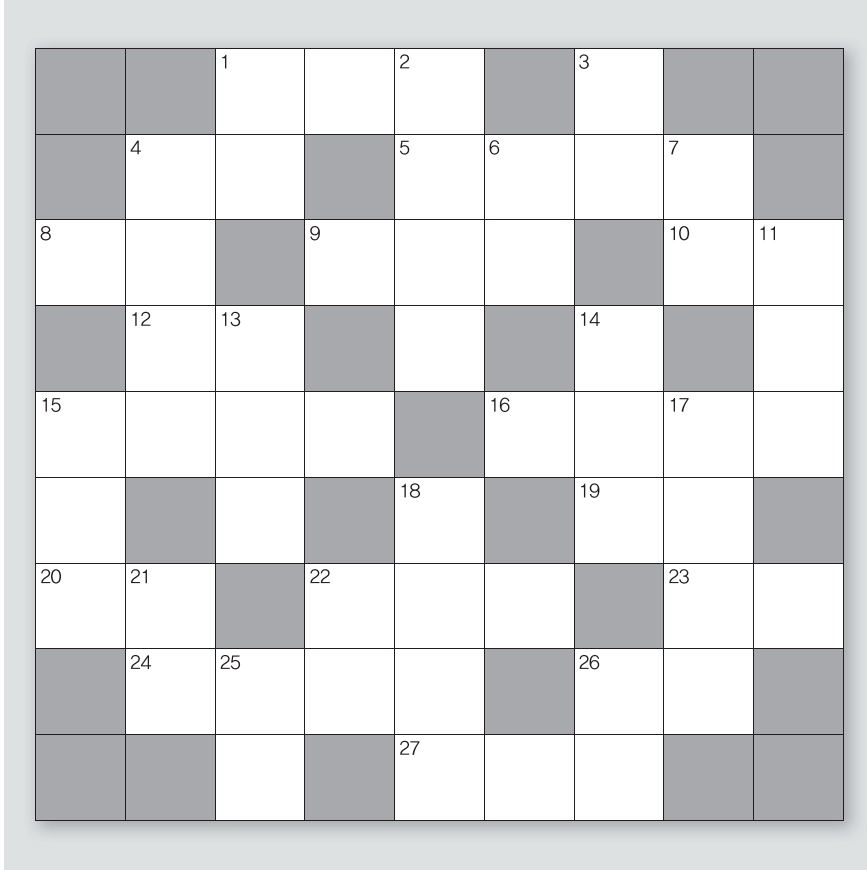
Brian: David, are you going to Mary's party on Saturday?
브라이언: 데이비드, 토요일에 매리의 파티에 갈 거야?
David: Yes, I am. Are you? 데이비드: 응, 너는?
Brian: Yes I'll be there. Hey, why don't you bring your guitar? I'm bringing mine.
브라이언: 그럼 나도 갈 거야. 근데 기타 가져오지 그래? 나도 내 거 가져갈게.
David: I don't have my guitar anymore.

데이비드: 이제 기타 없어.
Brian: What?!!
브라이언: 뭐?!
David: I had to part with it. I sold it.
데이비드: 처분해야 됐어. 팔았어.
Brian: What?!! You sold it?
브라이언: 뭐?! 팔았다고?
David: I needed the money. I couldn't make my rent. My hours at work were cut.
데이비드: 돈이 필요해서. 렌트비를 못냈거든.

근무 시간이 줄었어.
Brian: I loved that guitar!
브라이언: 그 기타 좋았는데!
David: I had that guitar for a long time. It broke my heart to sell it.
데이비드: 오랫동안 갖고 있던 기타였는데. 팔려니 마음이 아프더라.
기억할만한 표현
▶ make (one's) rent: 렌트비를 내다.

"She needs two jobs just to make her rent." (그녀는 렌트비를 내기 위해 두 개의 직업이 필요합니다.)
▶ hours (at work) are cut: 근무 시간이 줄다.
"His hours at work were cut so he has to get a second job."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는 직업을 하나 더 가져야 했습니다.)
▶ it breaks (one's) heart: (누구의) 마음이 아프다.
"It breaks his heart to have to sell his motorcycle but he has to do it." (그는 마음이 아팠지만 모터사이클을 팔아야 했습니다.)

날말퀴즈



가로열쇠

(1) 콧속이 간질간질하다가 예취. 오소매로 가리고 해야조 (4)강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오랫동안 갈리고 물에 씻겨 반질반질하게 된 잔돌 (5)봄의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려고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 올 봄엔 사회적 거리두기로 보기 힘들죠 (8) 나라에 병란이나 사변이 있을 때 신호로 울리던 불 (9)입의 윗부분. 찌개를 먹다가 ~을 데었다 (10)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가려서 즐겨 먹음 (12)영하나 TV에서 화면에 비쳐 보이는 글자 (15)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데서 먹고 잠을 잠. 모진 고생 또는 객지에서 겪는 고생. □□□숙 (16)낮(주)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끈기있게 공부함 (19)벽면에 물건을 얹어 놓을 수 있게 만든 널빤지 (20)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죠 (22)흥을 돋우기 위하여 노래나 춤의 곡조에 맞추어 내는 소리 (23)물레 톱을 타서 1루에서 2루로 또는 2루에서 3루로 가죠 (24)자신이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26)밥상 등을 닦는 데 쓰는 헝겂 (27)복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운이죠. □불□

세로열쇠

(1)말의 입에 물려 말을 제어하는데 쓰는 것 (2)생각이나 착상이 엉뚱하고 기발함. □□□□ (3)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4)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함.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 (6)짜장면에 들어가는 중국식 된장 (7)깨어지거나 부서진 조각 (11)상한 음식이나 독버섯을 먹으면 위험하죠 (13)몸을 움직여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닦는 대로 하는 일 (14)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 (15)바람이 부는 방향을 관측하는 계기 (17)남의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도망함 (18)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현재의 어려움을 ~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나아감시다 (21)사물의 진행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 인기 ~에 오르다 (22)지방산과 글리세롤이 결합한 유기 화합물. 상온에서 고체의 형태이다. 피부밀·근육·간 파위에 저장되며, 에너지원이지만 몸무게가 느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5)선거에서 뽑힘 (26)복된 좋은 운수. ~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톨스토이/안나 카레니나)

스도쿠

	2	4	5		3	9	6	1
		6	7					
1				6	9		4	
5		2					3	
		7	1				2	
	6		4		2	8	1	
6		9		2				
3	4		9	5				
					6			4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양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양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양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구인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 지역
(646)229-2708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드릴게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O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차콜온돌
진짜가 나타났다

건식온돌 난방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치과의사 모심
최고의 치과시설을 보유한 병원
(Texas, El Paso)

- 텍사스 면허 소지하신분
- 최고의 연봉으로 대우
- 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문의: (551)579-0968 mgff1770@gmail.com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유

1-213-210-9720/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 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살삼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채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